

2000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

□ 제안이유

- 86년 문산읍 당동리 40-11외 1필지 5,866㎡의 철도청 부지에 행정자치부의 시범동산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 사용해 왔으나
- 공원일부가 문산-선유간 도로개설 공사에 편입되어 잔여부지만을 이용 공원으로 재조정시 규모가 협소하고 주변의 토지의 불량수목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
-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령한 지장물 이설 보상 예치금으로 문산읍 당동리 39번지외 3필지를 매입하여 정지작업후 조경수 식재와 산책로를 개설하고 편의 시설을 설치하여 휴식공간의 명소로 조성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문산읍 당동리 4필지 1916㎡(580평)을 1억3천9백3십2만3천원에 매입하여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함.

□ 검토의견

- 기존의 내무부 시범동산의 공원일부가 도로 공사 부지에 편입되어 현재 공원이 매우 협소한 실정이어서 시민휴식공간으로 이용하기에는 부적합한 면이 있으므로 현 공원 부지와 입접해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공원화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됨.



<매입토지 전경>

- 또한 토지매입비의 경우 문산-선유간 도로공사시 서울지방 국도 관리청에서 지급한 이설보상금중 일부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상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됨.
- 매입예정 토지내에는 현재 군시설물(전차진지 1개동과 차량호 1동)이 위치하고 있으나 관계부대에서 공원 조성이 공익 사업임을 감안하여 전차진지 1동 과 차량호 1동을 관계부대 요구 위치에 이전해 주는 조건하에 현 매입토지의 공원화 사업을 동의 해 주어 공원 사업시행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됨

매입예정 토지내의 군시설물(전차진지1동과 차량호 1동)

